

매일 발행되는 썬파오베트님 데일리뉴스를
가독 채널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한총리, 베트남 공안부 장관 접견 "韓기업 보호 노력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또 럽 베트남 공안부 장관을 접견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한 총리는 베트남 내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는 공안부가 베트남을 방문하는 한국 국민, 거주 중인 교민,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또 럽 장관은 한국의 국

민과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더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작년에 전했다. 한 총리는 이어 한-베트남 관계가 지난해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양국이 '이제 걸맞게 국방, 방위산업 등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관련 법령 개정 등 베트남 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 경제장관은 한국 기업이 베트남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국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 총리는 2030 세계비남학(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유치 역량을 강조하면서 베트남의 지지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2023.04.07)

다낭 선짜반도 자연보호구역,
밀렵으로 몸살

베트남 중부 해안관광도시 다낭시(Da Nang) 선저반도(Son Ra)의 자연보호구역이 야생동물 밀렵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7일 보도했다.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응우한선군(Ngu Hanh Son)과 선저삼림보호국은 올해 27번의 불시단속을 포함해 총 74차례 순찰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포획장비 400여개와 밀렵꾼들의 캠프로 추정되는 야생지 2곳을 철거하고, 포획된 거북이, 다람쥐, 원숭이 등의 야생동물을 구조했다. 응오쥬엥 켄(Ngo Trung Chinh) 선저삼림보호국장은 "선저반도 자연보호구역에 불법 포획장비 설치되는 지난 수년간 노력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밀렵행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년 여동안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만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국장에 따르면 지정 자연보호구역들 선천자연보호구역은 입장료가 없기 사람들의 출입이 자유롭다. 이 때문에 밀렵꾼이 늘어나더라도 이를 통제할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선천자연보호구역 전체 면적 37,91km²에 보호대원은 8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선천자연보호구역도 다른 자연보호구역처럼 입장료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도심에서 북동쪽 10km 거리에 있는 선천반도는 온갖 진귀한 식물과 랑구르원숭이와 같은 희귀동식물이 1300종에 달할 정도로 울창한 자연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이를 구경하기 위한 방문객은 하루 1000명이 넘는다.

(인사이드비나 2023.04.07)

호찌민 메트로, 운영 인력 부족 위기

호찌민 메트로 1호선의 운영사에 따르면 자금 부족으로 인해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충분히 고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Vnexpress가 7일 보도했다. 최근 재정부에 서한을 보낸 호찌민 도시철도주식회사(HURC1)는 여러 가지 이유로 메트로 노선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706명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국영기업인 HURC1은 2018년에 메트로노선 운영회사로 지정됐으며, 2015년에 설립했다. 설립 당시 호찌민 시민인원위원회가 관리하는 회사는 사물상 장비비와 위생 관련비용을 제외한 400억 동(약 3천 달러)의 자본금을 위

원반았지만 운영 예산이 없는 상황이며, 건설이 너무 오래 지연되면서 회사는 2021년 8월에 이미 자본을 모두 소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설립 계획과 베트남 정부와 일본 국제협력기구 간의 협약에 따르면, 노선이 운영되기 전에는 HURC1의 수익이 전무하기에, 베트남 정부가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을 할당해야 하지만, 메트로 건설에 집중한 나머지 운영예산은 제대로 분배가 되지 않은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호찌민 메트로 1호선은 94%의 공정이 마무리 됐으며, 2023년 연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Vnexpress 2023.04.07)

호찌민시 아직도
"비자, 노동허가서
발급이 느리다"
외국기업들 개정요구



호찌민 당국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 허가 발급 속도를 높였다고 밝혔지만, 외자유업들은 여전히 절차가 오래 걸린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6일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지난 6일 시당국과 호찌민시에 소재한 외국상공회의소간의 정기회의에서, 유럽 상공회의소(EuroCham)의 관계자는 취업 허가 신청에 최대 2개월이 걸린다고 시 당국에 호소하면서 외국 기업들은 신청서 처리 시간을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측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제출된 신청서를 접수하는 데만 7~10일이 걸린다. 이러한 기업 측의 요구에 대하여 호찌민시 노동보훈사회부 관계자는 지난달 초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여 취업 허가 발급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현재 신규 허가를 발급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갱신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서 제출이 하루 이내에 수락되지 않으면 기업이 신청서의 하드 카피를 가져와 직접 제출해도 된다고 덧붙이면서, 기업들의 온라인 신청서 제출을 근무 시간 외라고 주장해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서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관의 사정을 설명했다. 람 장관은 자신의 부서가 취업 허가 연장 및 취업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외국인 인종 두 가지에 대한 처리 시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일 외국기업들은 2020년부터 시작된 외국인 취업 허가 취득에 관한 법령에 관한 개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3년전부터 시행된 바 법령은 '외국인 전문가'를 학사 학위 이상과 관련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수년 간 근무했지만 어떤 이유로 대학 학위가 없거나 이전 회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경력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한 전공을 졸업했지만 다른 분야에서 수년간 근무한 전문가가 많다고 설명하면서,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3월 19일에 열린 2023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다오 응옥 중 노동사회장은 정부가 노동법을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규 취업 허가 규정 초안을 작성할 때 외국인 전문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Vnexpress 2023.04.08)

(Vnexpress 2023.04.06)



이스토리

환절기 건강 지키기 이스토어가 한다!

신토불이 한국산 구이세트

한국산 상추 : 11,800동/ 100g
한국산 수삼 : 200,000동/ 100g
한국산 참송이버섯 : 50,000동/ 100g



카톡아이디:K531

FRIENDS GOLF HOLDINGS VN

Golf Academy & 3D Screen Golf

AT COBI TOWER 1 - PHU MY HUNG

**GRAND
OPENING**
YOU ARE INVITED

**FRIENDS
SCREEN GOLF**

COBI TOWER I

FRIDAY . APRIL . 14

START 11 AM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COBI TOWER 1 - Hoang Van Thai Str.,
Tan Phu Ward, District 7, HoChiMinh City**

**Hotline: 028 2233 5599
0777 30 89 89**

www.friendsgolfvn.com

성공적 베트남 비즈니스의 동반자!

DAILY AD



한글

E. info@chaovietnam.co.kr
M.079.283.2000 | T. 028.3511.1075/1095



썬짜오 베트남 잡지와
데일리 뉴스레터에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카카오채널 "신짜오베트남" (http://pf.kakao.com/_vaUWd)
현 2,100여명 회원 보유 한인사회
교민들이 주요 단톡방 50여곳에 배포

"중국 커지는 영향력 견제"... 베트남 · 인도네시아 달려가는 미국



미국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적극적으로 손을 뻗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8일 보도했다. 중국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최고지도자를 만나며 '차이나 머니' 위력을 과시한 지 일주일 만에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두 나라를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동남아시아국가

연합(ASEAN · 아세안) 내 영향력 확대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사례다. 7일 베트남주재 미국대사관은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을 포함해 상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이 8일부터 8일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찾는다고 밝혔다. 표면적 이유는 '양국과의 유대 강화다. 의원들은 기후변화 현장 방문, 부 관료 및 아세안 지도부 면담, 현지 미국 기업인과의 만남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미국 외교위 의원들의 해외 방문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다만 시기가 미묘하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최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게 불과 일주일 전(지난달 31일)이다. '보아보 포럼 참석이 명분이었지만, 아세안 정상 중 포럼을 위해 중국을 찾은 건 두 정상에 유일했다. 당시 리창 중국 총리는 두 정상에게 "경제 문제를 정치화 · 안보화하려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동남아시아국가

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소통"이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도전'은 커지는 중국의 세안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미 베트남에 노골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다. 지난달 22일 애플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미국 경제대표단이 베트남을 방문해 투자 · 무역 확대 강화를 제안했다.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베트남과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 10주년을 맞아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종 당 총비서(서기장)와 통화하며 양국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락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바이든 대통령이 쑹 서기장을 클리 의원은 순방을 앞두고"다"고 주장했다.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에 직면한 최전방 국가라는 이유에 면적 도전에 대처할 수 있을

(한국일보 2023.04.09)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베트남산 고추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베트남산 고추를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 회수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이엠피드 주식회사(충남 공주시)와 대림글로벌푸드 주식회사(부산 강서구)에서 수입한 생산년도 2021년, 2022년인 베트남산 고추다. 이들 제품은 각각 농업회사법인 다운푸드(충북 음성군), 주식회사 고추나라(경북 경산시)에서 소분 판매했다. 해당 제품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수입·소분업소 (소재지)	제품명 (유형)	수출업소	수입량 (kg)	생산년도 포장일 (유통기한)	포장 단위	검출치 (mg/kg)
수입 농산물	제이엠피드 주식회사 (충남 공주시)	냉동고추 (고추, 열매)	PHAM TAN CHILLI CO., LTD.	48,000	생산년도 2021년	20kg	0.11*
	농업회사법인 다운푸드(주) (충북 음성군)	베트남 건고추		-	포장일 '22.11.7	1kg	
수입 농산물	대림글로벌푸드(주) (부산시 강서구)	냉동홍고추 (고추, 열매)	DIEU PHU CO., LTD	72,000	생산년도 2022년	20kg	0.05*
	소분 제품	고추나라 (경북 경산시)		-	(유통기한 '24.2.12)	300g	

에서는 주로 벼 재배 시 사용하는 살균제 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인 트리스아클라졸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출했다. 제이엠피드 수입분은 검출치가 기준치(0.01mg/kg 이하)의 11배인 0.11mg/kg, 대림글로벌푸드 수입분은 0.05mg/kg

(뉴스핌 2023.04.07)

송월 SONGWOL

SONGWOLVINA.COM

근로자의 날 기념 세트 주문 받습니다.
Nhận đặt hàng cho bộ khăn kỷ niệm Ngày Lao động.

AGENCY BẮC NINH : 0989 151 327 HCM (KR) : 0896 679 905
HÀ NỘI : 0946 113 222 HCM (VN) : 0936 922 227

SONGWOL Mr.Lee : 0931 535 776
Mr.Dat : 0901 665 120

신짜오베트남 부설 대안간담회
비즈니스 투자자문, 창업자문, 노동자문, 법률 자문, 부동산 자문, 마케팅 자문
TEL : 090 888 1000 / 0908 888 3333 E-MAIL : kakao@xinchaovietnam.com

* 본 메일은 광고주의 요청으로 신짜오베트남에서 보내 드리는 홍보 메일입니다.

차세대 기종 드림라이너 B787-9
프리미엄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에어프레미아와 함께 편안한 하늘길

호찌민 SGN ✈️ ICN 서울(인천)

주 4회 (월, 수, 금, 토) 운항



Premia 42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비싼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비즈니스석처럼 편안한 서비스



Economy 35 이코노미석 이코노미석을 타고 편안하게! 동급 대비 가장 넓은 이코노미석



AIR PREMIA

Ch

신짜오베트남



매일 발행 되는 신짜오베트남 데일리뉴스를
가트 채널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적 베트남 비즈니스의 동반자!

DAILY AD



광고
문의

E. info@chaovietnam.co.kr
M.079.283.2000 | T. 028.3511.1075/1095

신짜오 베트남 잡지와
데일리 뉴스레터에
광고주를 모십니다!

카카오톡 채널 "신짜오베트남" (http://pf.kakao.com/_vaUWd)
현 2,100여명 회원 보유 한인사회
교민들이 주요 단톡방 50여곳에 배포